



1980년 5월 광주를 담은 영화 **택시운전사** 다음달 2일 개봉

이방인이 본 그날의 뜨거움, '먹먹한 감동'으로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10일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시사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다음 달 2일 개봉하는 '택시운전사'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를 그린다.

택시의 '백미러'와 외신기자의 카메라 뷰파인더에 투영된 광주의 참상은 기존 영화나 다큐멘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지 않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37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이유이다.

주인공인 서울의 택시기사 만섭(송강호 분)은 평범한 소시민이다. 당시 유행하던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시위 현장에 쫓아다니는 대학생들을 보며 혀를 끌개 차는, 요즘 말로 '짠대다'. 밀린 월세로 고민하던 만섭은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

영화는 관객들을 만섭의 시선 속으로 이끈다. 광주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만섭은 택시가 고장 나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확실한



류준열·송강호·유해진

장을 목격하고, 자신도 계엄군에 붙들려 고초를 당한다.

말 때문에 피터를 광주에 남겨두고 서울로 가던 그가 운전대를 다시 광주로 돌린 것은 대의명분이나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 도리 때문이다. 돈 때문에 광주에 왔던 만섭은 계엄군의 총격이 쏟아

아지는 금남로에 택시를 몰고 가 시민을 구하는 소용없음으로 거듭난다.

이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인간적이다. 광주 택시기사 황태술(유해진)은 그 와중에도 만섭과 피터를 위해 상다리까지 부러지도록 한 상을 차려준다. 광주 대학생 재식(류준열)은 노래로 한껏 흥을 돋운다. 이들은 계엄군이 총을 쏘자 "모르겠

어라. 우덜도 우덜한테 와 그라는지..."라고 말할 정도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독일 기자 피터 역시 위협을 무릅쓴 취재에도 "사건이 있는 곳에 갈 뿐"이라며 담담하게 말한다.

이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색채 대비다. 만섭이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의 양 옆은 온통 녹색이다. 만섭의 녹색 택시와 어우러져 마치 한 쪽의 수채화처럼 평화롭고 아름답다. 반면, 광주로 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후가스로 뒤덮여 스크린은 뿌연게 변하고, 화재로 인해 붉은빛이 감돈다.

송강호의 연기는 명물처럼된다. 혼돈의 광주를 뒤로 한 채 밭에 예쁜 구두를 사 들고 서울로 가던 그가 헤은이의 노래 '제3한강교'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듯 말투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장면이 압권이다. '피아노' 등에 출연했던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실존인물인 위르겐 힌츠펠터를 연기해 감동을 준다.

이 영화는 15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1980년 5월을 재현하기 위해 광주의 한 공터에 100% 똑같은 크기로 80년대 5월의 금남로를 재현했다. '고지전', '의형제' 등을 연출한 장훈 감독의 신작이다. /연합뉴스



배우 추자현과 남편 위사오광

'동상이몽 2' 출발 순조

한중 커플 결혼생활 화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이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동상이몽2'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1부 5.5%, 2부 7%를 기록했다.

'동상이몽2'는 이재명(53) 성남시장과 부인 김혜경(50) 씨, 한류스타 배우 추자현(38)과 남편 중국인 배우 위사오광(于晓光·35), 개그맨 김수용(51)과 부인 김진아(44) 씨의 결혼생활을 관찰하는 내용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다.

첫 방송에서는 특히 추자현과 위사오광이 지난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추자현은 결혼 스토리를 공개하기 전 "지난 1월 혼인신고 마쳤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결혼 증명서를 공개했다.

위사오광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알게 된 지는 5년 됐다. 5년 전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친구로 편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남자로 다가오더라"며 "이 친구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혼인신고 당일 위사오광이 준비했던 프리포즈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사오광은 영상에서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라며 무릎을 꿇고 프리포즈했다. 위사오광은 이어 감동해 우는 추자현을 데리고 테라스로 향해 준비한 불꽃놀이 함께 구경했다. 프리포즈 마지막에는 위사오광의 부모님이 등장해 추자현에게 금발머리를 선물했다. /연합뉴스

송강호 "비극 속에도 희망 있음을 전하고 싶었죠"

"영화 '택시운전사'가 지향하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분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주인공을 맡은 송강호는 "이 작품은 현대사의 아픈 비극을 그린 영화다. 하지만 그 비극을 슬프게만 묘사하기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훈 감독은 "이 작품은 힌츠펠터 기자가 2003년 한국에서 제2회 송강호 언론상을 받을 당시 자신을 태워준 택시기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던 수상 소감에서 출발한 영화"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극 중 택시기사 만섭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은 힌츠펠터 기자와 광주 시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창조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장 감독은 또 "이 작품은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다. 우리 같은 보편적인 소시민이 광주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광주에 가서 1980년 5월의 상황을 맛보았을 때 어떤 심리적 변화를 갖게 될

까에 초점을 맞췄다"며 "인물의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하에 참담했던 당시 광주의 모습도 담았다"고 말했다.

1980년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송강호는 "라디오 방송에서 폭도를 진압했다는 뉴스를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왜곡된 보도와 통제로 눈과 귀를 막았던 시대였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당시 희생당하신 많은 분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담아서 진실을 알리고자 연기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빛을 낼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영화는 군경과 광주 시민을 막론하고 모든 희생자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며 "이 영화가 지향하는 것은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자는 것이 아니다.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현재의 우리 삶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독일기자 힌츠펠터 역은 영화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독일 배

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연기한다.

작품의 배경이 1980년대인 만큼 작품 속 또 하나의 주인공 '택시'로 브리사와 포니가 등장하고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비롯한 당시 히트곡들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80년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장훈 감독은 "단발머리는 당시 시대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어서 영화 첫 부분에 삽입했다"며 "곡 사운드를 흔쾌히 허락해준 조용필 씨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연기한다.

작품의 배경이 1980년대인 만큼 작품 속 또 하나의 주인공 '택시'로 브리사와 포니가 등장하고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비롯한 당시 히트곡들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80년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장훈 감독은 "단발머리는 당시 시대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어서 영화 첫 부분에 삽입했다"며 "곡 사운드를 흔쾌히 허락해준 조용필 씨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람, 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UHD 한국의 유산 (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트 (재)	50 빛날스페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7일의 왕비(재)	00 MBC 정오뉴스 20 군주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집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제27회 KBS 국악대경연 대상 선정 연주회		30 MBC 스페셜 진관사, 절발 한 그릇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5 꾸러기 식스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2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팔도발상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콜러코스타보이 노리 15 스토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 (재) 45 날씨의 생활 50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라!라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공감라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남사친 여사친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면바당 거든명)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15:05 두키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9:40 글로벌 애매 찾아 삼만리(재)	15:20 마사와 곰	<이 보다 좋은 수? 없다
<태평양 섬문화 기행	10:30 한국기행	15:35 모피와 친구들	태국 - 이상한 마을로의 초대
- 화산이 만든 보물섬 까미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21:30 한국기행
06:00 한국기행(재)	<까문의 쌀국수>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인생은 로드무비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 섬총사 대모험
07:00 꼬마버스 타요(1)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1:50 EBS 창사특별기획-최종면접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5 뽀롱뽀롱 뽀로로	(나는 호텔리어가 되고싶다)
07:45 출동! 슈퍼웬스	12:40 지식채널 e	17:30 로보카 폴리	22:45 극한직업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2:45 EBS초대석(재)	17:45 똑딱맨(재)	<내 몸을 살리는 황토>
08:30 똑딱맨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23:35 장수의 비밀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독립적 주제)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24:25 지식채널e
09:00 추사영 외정 큐비주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9:30 EBS 뉴스	24:30 EBS 초대석
09:15 열매 까투리(재)	15:00 그림을 그려요	19:55 메디컬 다큐-7일(재)	(포기할 아이는 한 명도 없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2일(음 윤5월 19일 庚子)

子	48년생 손실이 따르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도 동반하리라. 60년생 지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 받는 법이다. 72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매여 있다. 84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27, 02	午	42년생 착각으로 인한 오해를 하기 쉽다. 54년생 관계가 개선되어 아 진전을 보일 것이다. 66년생 반드시 일정한 행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78년생 뜻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90년생 다듬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4, 12
丑	49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61년생 직책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73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달라고 있으니 곧 좋은 일이 있으리라. 85년생 새로운 일을 접하는 기쁨은 대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24	未	43년생 균형이 필요하다. 55년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67년생 다수가 심각하게 의논해야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79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91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리라. 행운의 숫자 : 25, 19
寅	50년생 밭지 않은 장래가 될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 62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마음을 폭 놓아라. 74년생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속출하리라. 86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4	申	44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6년생 추세에 영향하려 하지 말고 쫓대를 가자라. 68년생 지혜로운을 발휘한다면 후환을 면하리라. 80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22, 03
卯	51년생 액자지껄하게 떠돌어 대고 있는 국세로다. 63년생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5년생 파생되는 형제까지 다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다. 87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28, 65	酉	45년생 입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57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69년생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 81년생 운색하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7, 32
辰	52년생 지금 당장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다. 64년생 기능의 활용에 신경 써라. 76년생 정성을 다 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88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1, 17	戌	46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자라. 58년생 준비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0년생 잘하다가도 일순간에 망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82년생 남의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36, 73
巳	53년생 파격적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65년생 기세유역이라 하였으니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77년생 모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89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65, 92	亥	47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절실한 문제에 봉착한다. 59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71년생 자기 확산에만 치우치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83년생 체면에 관련된 일이라면 노출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0, 7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